시민과 함께하는 일하는 의회

공 무 국 외 출 장
결 과 보 고 서

- 일본 다이센시 -

2023. 9.



- 당진시-다이센시 국제 우호·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-

당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

◆당진시-다이센시 상호교류를 통해 양 도시 간 우호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, 다이센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.

Ⅰ 출장개요

1 출장목적

❍ 다이센시(국외 우호도시)대표단의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방문에 대한 답방

❍ 제95회 오마가리 전국불꽃경연대회 참석(다이센시 공식초청)

❍ 양 도시의 상호 협력 및 우호 강화 기반 마련

2 출장개요

❍ 출 장 명 : 일본 다이센시 공무국외출장

❍ 기　　간 : **2023. 8. 25.(금) ~ 8. 28.(월) / 3박 4일**

❍ 출장국가 : 일본(아키타현 다이센시)

❍ 인　　원 : 8명(**당진시의회 3명**, 당진시청 5명)

3 출장자 명단

❍ 당진시의회

소 속	직 위	성명	비 고
-	의 장	김덕주	
의회사무국	의회사무국장	김지환	
의회사무국	주무관	성유경	

Ⅱ 출장일정

일자	시 간		주 요 내 용	비고
1일차 8.25. (금)	08:25	5′	▸ 집결	
	08:30~10:00	90′	▸ 당진시청 → 김포공항	
	10:00~12:45	180′	▸ 출국심사 및 비행기 탑승	
	12:45~15:00	135′	▸ 김포공항 ✈ 하네다공항	
	15:00~18:05	185′	▸ (수화물 찾기), 비행기 탑승	
	18:05~19:10	65′	▸ 하네다공항 ✈ 아키타공항	
	19:10~20:10	60′	▸ 아키타공항 → 숙소	
	20:10		▸ 취침	
2일차 8.26. (토)	08:00~09:30	90′	▸ 다이센시청 → 호텔	
	09:30~10:40	70′	▸ 호텔 → 스즈키 양조장	
	10:40~12:10	90′	▸ **스즈키 양조장(히데요시)**	
	12:10~12:20	10′	▸ 스즈키 양조장 → 오찬장	
	12:20~13:30	70′	▸ **【사토 부시장・사토 부의장 주최:환영오찬회】**	
	13:30~14:00	30′	▸ 오찬장(히라쿠마 회관) → 숙소	
	14:00~15:10	70′	▸ 호텔 휴식	
	15:10~15:30	20′	▸ 호텔 → 다이센시청	
	15:30~16:00	30′	▸ **다이센시장 예방 (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)**	
	16:00~16:30	30′	▸ 시청 → 불꽃 축제 회장	
	16:30~21:30	300′	▸ **제95회 전국 불꽃 축제 경기 대회 '오마가리 불꽃 축제'**	
	21:30~22:00	30′	▸ 불꽃 축제 회장 → 호텔	
3일차 8.27. (일)	10:15~10:30	15′	▸ 호텔 → 구 이케다씨 정원	
	10:30~11:30	60′	▸ **구 이케다씨 정원**	
	11:30~11:45	15′	▸ 구 이케다씨 정원 → 오찬장	
	11:45~13:00	75′	▸ **【콘노 부시장 주최:환영오찬회】**	
	13:15~14:45	90′	▸ 이온몰 오마가리	
	14:45~15:00	15′	▸ 이온몰 오마가리 → 하나비 뮤지엄	
	15:00~16:00	60′	▸ **불꽃 전통문화 계승 자료관 하나비 뮤지엄**	
	16:00~16:05	5′	▸ 하나비 뮤지엄 → 호텔	
	16:05~17:35	90′	▸ 호텔 휴식	
	17:35~17:45	10′	▸ 호텔 → 만찬장	
	18:00~20:00	120′	▸ **【시장・의장 주최:환영 만찬회】**	
	20:00~20:15	15′	▸ 만찬장 → 호텔	
4일차 8.28. (월)	09:20~09:50	30′	▸ 호텔 → 니시센보쿠 지역	
	09:50~10:10	20′	▸ 당진시와의 교류 전시(오쓰나 교류관)	
	10:10~10:30	20′	▸ **오쓰나 전시장 등(가리와노 역 앞)**	
	10:30~11:00	30′	▸ 가리와노 역 → 아키타 공항	
	11:00~12:55	115′	▸ 아키타공항 도착 및 체크인, 휴식	
	12:55~14:05	70′	▸ 아키타공항 ✈ 하네다공항	
	15:40~18:00	140′	▸ 하네다공항 ✈ 김포공항	

Ⅲ 주요내용

1 오마가리 불꽃경연대회

① 대회 역사



❍ 오마가리 불꽃경연대회는 **1910년(메이지 43년) 시작**되어 올해로 **113년의 역사**와 전통을 자랑

❍ 매년 대회 테마를 정하여 스토리와 음악에 맞게 불꽃을 연출하기에 **일본 3대 불꽃축제*** 중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로 꼽힘

* 아키타현 **오마가리**, 니가타현 **스치우라**, 이바라키현 **나가오카**

❍ 주요연혁

연 도	내 용
1910년	▪ 오마가리 불꽃경연대회 시작
1964년	▪ 국제 통상 산업무 장관상 수여, 창작 불꽃경연대회 시작
1979년	▪ 서독 요청으로 "일-독 우호 불꽃놀이" 시작
1990년	▪ 세계 불꽃놀이 마스터 컨퍼런스 개최
1992년	▪ 국제 불꽃경연대회 개최
1996년	▪ 헝가리 건국 1100년 축제에서 "오마가리 불꽃" 추진
2000년	▪ 내각 총리 대신상 수여
2010년	▪ "오마가리 불꽃" 100주년 기념대회 개최
2017년	▪ 제16회 국제 불꽃 심포지엄 개최

② 대회 개요

❍ 개 최 일 : 매년 8월 마지막주 토요일

❍ 개최장소 : 일본 아키타현 다이센시 오마가리 오모노 강변

❍ 주　　최 : 다이센시, 오마가리 상공회의소

❍ 행사규모 : 28개 불꽃사 참가 / 18,000발 연출

❍ 관람객수 : 약 70만명

❍ 특　　징

- 행정의 예산지원 無
- 유료좌석 판매(좌석당 7,000¥ ~ 50,000¥)
- 대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입장 수익으로 충당.
- 시와 상공회의소, 지역주민이 함께 주도적으로 진행

➠ 시(市) : 행정적 지원 / 상공회의소 : 대회 운영 / 주민 : 홍보 및 협조

- 민간주도로 추진해오다 20여년 전부터 다이센시에서 적극적 행정지원(교통 통제, 소방・안전, 경찰 인력 등 지원) 실시

➠ 행정지원 시작된 시점(20여 년전)부터 관람객 급증

- 8월 오마가리 전국불꽃경연대회 외에 3월(겨울), 5월(봄), 10월(가을)에는 중규모로, 그 외 매달 소규모로 불꽃축제를 진행

③ 방문단 참가내용

❍ 일　시 : 2023. 8. 26.(토)

❍ 행사명 : 제95회 오마가리 전국불꽃경연대회



당진시 방문단-다이센시청 방문



다이센시장 면담

	
불꽃경연 대회장 전경	오마가리 불꽃경연

시 사 점

① 축제의 전통성

-1910년 시작된 '오마가리 전국 불꽃경연대회'는
1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꾸준히 그 전통을 계승하여,
2023년 기준 제95회에 달하는 대회 개최 수를 기록함.

-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행사의 전통성은 물론,
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불꽃축제를 개최한다는 주민들의 자부심이 높음.

➠역사성에 집중한 스토리텔링은 물론, 문화행사가 갖는 전통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료 및 기록 보존의 중요성 체감.

② 안전관리

-대규모 관람객 입·퇴장 관련 이동 동선에 대한 안전요원 배치 및
안전한 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관람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

-교통 통제 및 진입 금지 지역을 설정하여
철저히 교통을 통제함으로써 차량으로 인한 혼잡과 사고 예방에 주력

-행사 중 지속적인 안전사고 대책에 대한 아나운서 안내 멘트 진행

➠대규모 축제 개최에 앞서 관람객 입·퇴장 동선관리, 화재, 미아발생, 의료지원, 교통안전 대책 등 종합적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필요

③ 환경대책

-행사 당일 발생한 쓰레기를 행사장에 버리고 가도록 유도

-도심이나 길가에 쓰레기를 유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

-행사 시설물 및 쓰레기 수거 등을 다음날 아침까지 완료하도록 조치

➠주민 불편 및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철저한 사전대책 마련
(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관리, 쓰레기 수거함, 교통 통제 및 소음 발생 등에 사전 주민 양해)

④ 대회운영

-행정적 지원(다이센시), 대회 및 프로그램 운영(상공회의소)의
철저한 역할 분담과 체계적 조직 운영

-대회 기간 경찰, 소방, 시청 직원 등 전 행정인력 투입 지원

➠행사추진 체계를 각 부문별(교통, 의료, 소방, 청소, 홍보 등)로 조직화하여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 강화

⑤ 사기업(불꽃사)의 자발적 참여 및 유료좌석 판매를 통한 예산절감

-경기에 참여하는 불꽃사에 예산지원 없이 불꽃제작비 등 기업 자체 부담
➲ 대회 참가를 통해 얻는 홍보 효과가 크기에 자발적 참여로 이어짐.

-그 외 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유료 판매 좌석의 입장 수익으로 충당

-축제 기간 동안 '숙박, 교통, 식당' 등의 다이센시 경제유발효과 창출

-오마가리(소도시)에는 숙박시설이 많지 않기에 인근 지역의 열차를 증편 운행
➲ 축제 종료 후 숙박을 위해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관광객도 많기에
다이센시는 물론 아키타현 전역으로 경제적 효과가 확산

➠유료 관객석 확대를 통해 행사추진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고, 수익발생 구조 정착을 위해 각종 기념품 판매, 브랜드 라이선스 보유 등 신규 아이디어 창출 도모

2 가리와노 큰줄다리기





① 주요내용

- 일본의 국가지정 중요무형민속문화재이자 다이센시 대표 무형유산.
- 매년 2월 10일, 윗마을과 아랫마을로 나뉘어 줄다리기를 함.
- 줄의 규모는 직경 약 80cm, 길이 약 200미터, 무게 20톤으로 일본 전통 줄다리기 중 최대급.
- 윗마을이 이기면 쌀값이 오르고,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 전해짐.

② 역 사

- 가리와노 큰줄다리기는 500여년 전 무로마치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라 알려짐.

연 도	주 요 내 용
1602년	▪ 가리와노 지역에 무사마을이 설치, 백성이나 상인이 사는 곳을 도마치라 불렀는데 줄다리기 행사는 도마치 행사로 전승됨.
1656년	▪ 대화재(大火災)로 윗마을 2일정과 아랫마을 5일정이 남게됨.
메이지 이후	▪ 무사 제도가 폐지되고, 도마치 행사였던 큰줄다리기가 가리와노 지역 전체 행사로 변해감.
1957년	▪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줄다리기 협력위원회를 발족
1972년	▪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를 발족하여, 일본 최대 규모라 불리는 큰줄다리기의 전통을 보존·계승하는 활동을 시작함.
1983년	▪ 2월 22일, 아키타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됨.
1984년	▪ 1월 21일, 국가 '중요무형민속문화재'로 지정됨
1998년	▪ 큰줄다리기는 매년 음력 1월 15일 밤에 개최되어 왔는데, 이 해부터 공휴일(건국기념일) 전날인 2월 10일 밤에 개최하게 됨.

③ 줄다리기 교류관 및 전시관

❍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 사무실이자
가리와노 큰줄다리기의 역사・진행방식・큰줄 제작과정 등을 소개.

❍ 다이센시의 오랜 교류도시인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를 소개하는 전시장과 교류역사를 소개하는 코너도 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음.

❍ 가리와노역에 방문한 관광객 또는 역에 정차한 기차 안에서도 쉽게 관람할 수 있도록 역사 너머에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전시관을 설치.



줄다리기 교류관의 기지시줄다리기 전시장



오쓰나 교류관(가리와노 큰줄 전시)



가리와노 역의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전시장

시사점

① 일본의 전통색을 살린 축제

-가리와노 큰줄다리기 행사 시, 행사 주관 관계자들 전통의상 착용

-의상의 통일성을 통해 가리와노 줄다리기에 대한 이미지 각인 효과 발생

-지역의 고유 특성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작용

➠**축제의 문화적 이미지 및 홍보 효과 상승을 위해 지역 대표 축제(예.기지시줄다리기)에 전통 축제의상 제작・도입에 대한 검토 필요**

② **교류관 공간 활용**

-가리와노 큰줄다리기 홍보와 보존회 사무실로 이용되는 교류관 내에 **강당, 교육장 등 유휴공간**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함.

-축제 외의 기간에도 주민들의 방문을 유도하여 접근성과 친숙도를 높이고, 지역민과의 상생을 통해 가리와노 큰줄다리기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.

➠**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도 강당, 회의실, 교육장 등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, 시민들의 접근성 제고.**

③ **역사(驛舍) 전시를 통한 홍보**

-줄다리기 교류관 외에 가리와노 역에 줄다리기 전시관을 설치하여 역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관심과 자연스러운 홍보 효과를 유도.

-전시관의 벽면을 큰 유리창으로 만들어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, 역에서 하차하지 않는 승객 또한 관람할 수 있도록 함.(야간조명 有)

➠**당진시의 새로운 관문이 될 합덕역 개통을 앞두고, 역사(驛舍)를 이용한 기지시줄다리기 홍보 활용 가능성 검토**

3 간담회[교류협력 방안 논의]



다이센시・다이센시의회와의 만찬 및 간담회

▪주요내용

❍ 양 도시의 교류 방향 및 우호 강화 공감대 형성

❍ 양 도시 문화단체 교류 제안(미술 교류 전시 등) 등

Ⅳ 기타 방문지

1 하나비뮤지엄(오마가리 불꽃 전통문화계승 자료관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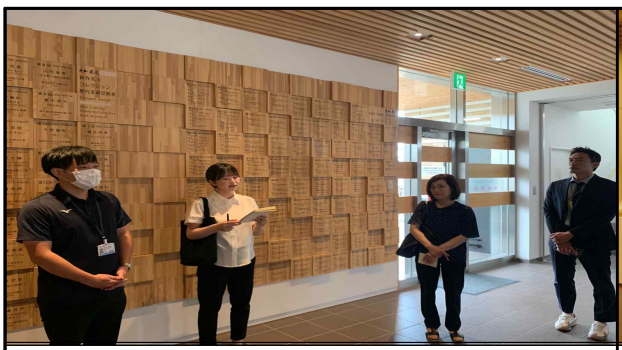
- 위　　치 : 다이센시 오마가리오마치
- 개 관 일 : 2018년 8월 5일
- 부지면적 : 4,465.10㎡
- 건축면적 : 473.78㎡
- 규　　모 : 지상4층
- 불꽃의 고장 다이센시를 상징하는 시설로, 불꽃경연대회 영상을 감상하거나 직접 불꽃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 있음.

[1층] 입구에 '오마가리 불꽃경연대회' 역대 우승자 명단 게시

[2층] 회의 및 연수, 각종 모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

[3층] 불꽃축제 공식 프로그램과 포스터, 기록영상, 서적, 달력, 신문기사, 불꽃 제작기술이 담긴 비전서와 불꽃놀이 콘티자료 등 전시

[4층] 하나비 씨어터, 오마가리 불꽃축제 역사 전시, 불꽃탄 모형을 사용하여 불꽃 제조 체험, 다이센시 내 전망대



(1층) 대회 역대 수상자 현황판



(3층) 하나비 자료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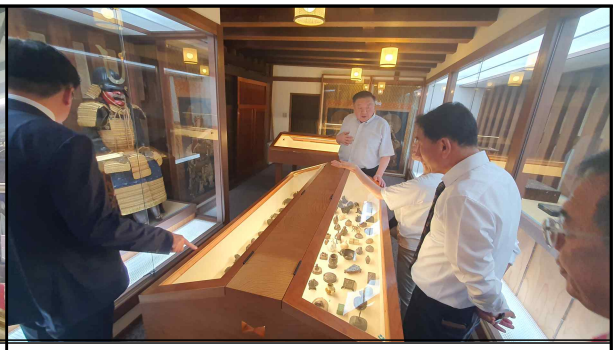


(4층) 불꽃 제조 원리와 연출내용 전시

2 스즈키 양조장(히데요시)



스즈키 양조장



스즈키 갤러리(양조 관련 수집품)

- 1689년 설립되어 334년의 역사를 가진 스즈키 양조장
- 1848년, 스즈키 양조장 사케의 맛과 품질을 칭송한 지역 봉건 영주 사타케에 의해 “히데요시”로 명명되었고, 이는 현재 스즈키 양조장의 대표 브랜드가 됨.
- 현재는 상쾌하고 톡 쏘는 맛으로 유명한 스파클링 사케 ‘La Chamte’를 만드는 등 여전히 제품의 품질 향상과 혁신에 힘쓰고 있음.
- 양조장 투어, 사케 시음, 양조장 소장의 1600년대의 예술 수집품 등을 감상하는 코스를 체험할 수 있음.

3 구 이케다씨 정원



일본 최대의 설견등



이케다 가문 소개 전시

- 근대일본 동북 3대 지주로 일컬어지는 이케다 가문의 옛 저택 부지.
- 이케다 가문의 문장(육각형)을 본떠 육각형 모양의 부지를 이루고 있으며, 일본정원과 양옥, 5개의 곳간이 남아 있음.
- 2004년, 아키타현 내 정원으로는 처음으로 국가 명승지로 지정됨.

참고 다이센시 현황



- 위 치 : 일본 아키타현 남쪽의 내륙부 위치
- 면 적 : 866,79㎢ (당진시 704,253㎢)
- 총인 구 : 73,853명 (당진시 169,427명)
- 대표축제: 오마가리 불꽃놀이축제, 가리와노 줄다리기 축제
- 지역특성

-교통의 요충지. 아키타 신칸센과 자동차도로 등 육로 철로의 요충지로써 거점 기능이 강화되고 있음. 현의 8지방의 하나인 센보쿠 지방의 중심으로써 국가와 현의 여러 가지 기관이 설치되어 있음.

-비옥한 곡창 지대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농업비율이 차츰 줄어들고 있음. 아라카와광산 등 광산도 발달하였으나 현재는 폐광됨.

현재 오락시설, 백화점, 숙박시설 등의 상업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오마가리 지구를 중심으로 3차 산업이 발달하고 있음.

- 우호친선도시 결연 경위

-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의 민간교류를 통해 교류 시작

- 그간의 교류상황

✓ 2023.4.22.~4.24. 다이센시 부시장 일행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방문(부시장 외 8인)
✓ 2019.4.13.~4.15. 다이센시 시장 일행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방문(시장 외 10명)
✓ 2018.10.10.~10.13. 다이센시 우호교류 10주년 기념행사 방문(시장 외 17명)
✓ 2008 ~ 2018. 대표 축제 상호 방문 및 청소년 교류
✓ 2007.11. 일본 다이센시에서 청소년 교류 제안
✓ 2007.8.25.:일본친선교류 협정 시 양 단체장 합의